

#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소망, 에스겔 8:1-11:25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5부,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에스겔 8:1-11:25.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서의 첫 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8장에서 시작하여 1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8장부터 11장은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상징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13장부터 19장까지 심판의 신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구성 요소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책이 설정되는 방식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구조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는 기본입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날짜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 연대순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에스겔이 단순히 자신의 30년을 언급했기 때문에 편집자의 손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장에서는 593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92년 9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여가 지나서 두 번째 부분의 시작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날짜를 정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예언적 경험이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말하는 내용을 입증합니다.

8장부터 11장은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전체이다. 그리고 그 틀은 처음 세 구절, 즉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환상적 경험입니다. 그것이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르면 환상의 끝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가 2장에서 본 비전은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인물은 분명히 신입니다. 내가 보니 사람처럼 생긴 형체가 있었습니다.

허리로 보이는 부분 아래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쪽에는 호박처럼 빛나는 광채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은 인물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의 환경을 언급해야 합니다. 제육년 유월 초닷새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었는데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에게 상담하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권위를 지닌 인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노동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치적인 노동 수용소였고, 그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동사를 얻습니다: fall.

왠! 아, 여기에 비전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 속의 신성한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 같은 것을 내밀어 내 머리털을 잡고 그를 들어올리더니 영이 대신하여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올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1장에서는 물리적 공중부양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첫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3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중 부양을 했고 예레미야는 육체적으로 노동 수용소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무아지경에 빠지고 자신이 고양되는 것을 느끼는 환상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그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트랜스에서 깨어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유형의 공중부양입니다. 그는 그것이 황홀경 경험이라고 느낀다. 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성전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일련의 환상의 장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환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 3~6장, 그다음 7~13장, 그다음 14~15장, 마지막으로 16~1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성전 지역에서 보여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렵네. 성전의 안뜰을 따라 내려가는 이 움직임에 대한 세심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처음에 에스겔이 성벽 바로 안쪽, 성벽의 북문 바로 안쪽 뜰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 단지 벽에 있는 또 다른 문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뜰 문을 통해 더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 지역 자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그는 끔찍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확실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이교 숭배입니다.

그것은 성벽과 궁전 단지 벽 사이의 뜰에 있는 성전 지역 밖에서 예배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Skype 경험인가요? 무아지경에 빠진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간 것은 생생한 경험입니까?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을 켜는 것과 같으며, 그는 이리저리 이동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아니면 다른 장면,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로 구성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비디오로 함께 모아졌고 에스겔에게 이 비디오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제안이 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 중 하나가 바빌로니아의 신인 탐무즈 신을 위해 애도 의식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종교, 탐무즈 숭배였습니다. 그는 매년 죽어 지하세계로 끌려갔고, 여자들은 애도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달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번은 또 다른 시간이었고 이번 달은 또 다른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별개의 영상이고, 다른 영상 장면인 것 같고,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방송을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비전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이교의 이미지, 이교 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긴 사찰 부지 밖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이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절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골짜기에서 본 환상과 같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음, 그게 1장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움직이는 보좌였고, 그 보좌에는 신들이 앉아 있었고, 그 보좌가 놓인 단을 지지하는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보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장들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이 움직임이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는 여러 단계에서 단계별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1장을 논의할 때 매우 복잡한 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성전, 지성소, 궤 위,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존재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광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 즉 움직이는 존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중적인 임재는 하나의 임재가 될 것이고, 성전 안의 하나님의 임재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장 7절의 두 번째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장면의 끝인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투의 이미지에 주의를 이끄십니다.

필멸자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쫓아내는도다 이것은 나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 장, 특히 5장의 키워드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가지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벽에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관문 옆에 방이 있어요.

에스겔은 이 구멍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담을 넓히고 올라가서 더 잘 살펴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혐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온갖 종류의 기는 것들과 신을 대표하는 역겨운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 중 한 사람이 사반의 아들인 나일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 때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교 신들의 형상을 숭배하고 있는 장로 중 한 사람입니다.

각 사람의 손에는 향로가 있고 향기로운 향연이 올라가더라. 이제 향로를 사용하고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교 숭배의 일부로 그것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이 감탄문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충격이 드러납니다. 오 인간아,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각자는 자신의 이미지 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에는 다양한 칸막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각 장로들은 각자의 칸막이실에서 벽에 걸린 특정한 그림들을 바라보며 개인적인 헌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저지르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4절과 15절의 세 번째 장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성전 바깥뜰의 북문 근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신인 담무즈(Tammuz)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여성들이 특히 참여하는 숭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그들은 매년 이 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유대 여자들에 의해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나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절과 17절에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환상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안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는 남자 2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있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일부.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전 안뜰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서 이 점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필멸의 존재여,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격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태양신에 대한 충성의 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행하리라.

17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비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의 신탁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형벌. 그러므로 비난과 형벌의 두 부분은 구약의 예언에서 자주 연결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결과는 내가 진노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내 귀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아니 아니,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심판의 신탁을 통해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분께서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성의 집행자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예배자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세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었습니다.

하하, 야나.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고 곧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괴하는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육을 위한 무기를 들고 있는 여섯 남자. 그런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6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있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통을 찬 사람이더라. 서기관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놋 제단, 곧 번제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각자의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천사가 멸망을 행하고 그 다음 다른 천사가 행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보좌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는 3절에 이르렀습니다. 아니요, 모바일 왕좌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얻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존재인가? 성전의 임재인가, 아니면 이동하는 임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의 존재가 그룹, 즉 그룹의 구조물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길한 일이다. 그것은 항상 지성소의 어두운 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며 에스겔은 성전 현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하늘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필기 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 그 사람이 성읍 중에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붓과 먹으로 표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존자들을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한숨을 쉬고 신음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할 소수의 사람들과 아마도 멸망을 당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뚜렷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여섯 명의 파괴 천사들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9장과 8.18 사이에는 꽤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로다

음, 그게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이 파괴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8.18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절에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실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8.18은 의제를 명시하고 9장은 그 의제의 이행이다.

그러므로 그 집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도살이 있어야 하고 그 시체를 성전 안과 성전 안에 넣어 더럽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때, 그들이 죽이고 나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여기 8절에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리이까?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지닌 에스겔을 자주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예언적인 역할, 즉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하지 말라고 지시받지 않는 한 고대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전 선지자들은 두 가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밀한 사역, 숨은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오, 제발, 하느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을 너무 나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 하느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사례는 물론 아모스서 7장 2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본 땅과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용서하옵소서.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또 다른 멸망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다시 중재하여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중보, 예언적 기도, 기도의 힘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8장 2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 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 써버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이 중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에스겔이 그렇게 한 또 다른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심히 크다. 그 땅은 피흘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는 변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범하는 도덕적, 사회적 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그는 우리를 적에게 넘겨주고 사라졌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완전히 옳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 에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은 8·18의 또 다른 메아리다. 그래서 그 의제는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서 그 사람이 보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사람들의 머리에 나의 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었던 순종하는 서기관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이러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서문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사실상 10장의 서문입니다. 서기관이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10장에서 1절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궁창이 보좌와 같은 것이 보이니 그 위에 마치 구름 같은 것이 보이더라 왕좌와 비슷한 형태의 사파이어.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지성소를 떠나 지금 성전 현관에 나타나는 성전의 임재뿐 아니라, 그 뜰과 뜰과 안뜰에도 있었습니다. 이 이동식 보좌는 신현의 하나님의 다른 임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가 합쳐져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동 왕좌에서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임무로 돌아가서 2절에서 그가 언급될 때까지 그의 옆에 펜과 잉크가 들어 있는 필기 상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는 서기관이 아니니라 하시고 그에게는 할 일이 또 있다. 나는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는데 전혀 서기가 아닌 일입니다. 이 작업에는 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룹 아래에 있는 목공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너희 손에 가득 담아 성읍 전체에 흩으라. 1장에서 우리가 연단 아래와 그 생물들 사이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심판의 신현 안에는 불, 불, 심판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룹 아래의 목공소 안에 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타는 석탄으로 손을 채우십시오. 그는 손을 데워서 도시 전체에 흩뿌리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이 실제로 그 도시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1장의 생물들이 이제 그룹이라 불리는 것을 주목합니다. 10장 전체에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형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동물의 몸을 가진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바뀌었나요? 그것은 그 그룹들, 그 형상들, 지성소에 있는 그 형상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좌를 지탱하는 금 형상들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한 무리의 그룹에서 다른 그룹의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의 신하들의 조각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묘사되어 있으며, 이제 움직이는 보좌 아래에 있는 이 생물들에게 그들의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3절에 보면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섰습니다.

그 가증한 일은 모두 북쪽에 있어서 북문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북문으로 들어간 다음 성전의 북문으로 들어가는 등의 일이더라.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보좌는 성전 남쪽, 반대편에 위치하여 성전 내에서 그 가증한 것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불에 관한 시편인 시편 18편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신의 현현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8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을 삼키며 그에게서는 숯불이 났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적들에게 사용하실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룹을 타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편 18편 10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동성은 그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에 대한 일종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곧 그룹에서 일어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9장 3절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앞에 있고, 그룹 구조에서 집 문지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뜯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졌고 그것은 빈 껍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지성소의 어둠 속에서 임재하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신현의 영광스러운 현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11절에 보면,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음으로다 그리고 여기에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사용 초기에 나타났던 영광은 이제 성전을 떠날 때 마지막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시작에 대한 끔찍한 회상, 이제 예배의 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밝은 신현, 즉 이 성전의 존재에 대한 가시성은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며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8절부터, 즉 9절부터는 그룹들과 바퀴들에 대해 설명하는 긴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15화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룹들, 이제는 이동보좌의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출발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성전 임재가 움직이는 보좌 임재와 합쳐지도록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동 왕좌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룹들이 일어나서 1장의 생물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같은 장면이 다시 반복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은 기발 강 가에서 본 생물들이라.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그 옆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날개를 들고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땅을 따라 한동안 움직이다가 날개가 펴려지고 전차 왕좌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영이 그 안에 있어 바퀴와 생물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 움직임이다. 임재, 즉 성전 임재는 18절에서 신현의 임재와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땅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동 보좌가 있었던 곳에서 약 50야드 떨어진 성전 안뜰의 문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됩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20절에는 다시 한 번 생물과 네 얼굴이 동일시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임재는 이동하는 왕좌의 임재와 합쳐지고 더 이상 성전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11:22 에서 계속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에스겔은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거기서 그는 동쪽 지평선 너머에 있는 거대한 감람산과 그 움직이는 보좌가 하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전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성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지역에서의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본 네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은 25명이었고, 에스겔은 그 중 두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야아사냐처럼 보이는 야아사냐와 백성의 관리인 벨레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장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 이전에 그 중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아, 이들은 이 성읍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라.

그들은 시의회 의원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고, 집을 지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냄비이고 우리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 같았는지, 입법을 가장하여 도시에서 재산이 압류되고 있었습니다. 집은 주인으로부터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그들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북부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옆집에 갖고 싶어했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원은 왕의 소유가 되었고, 아합 왕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잘못된 법안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도시는 냄비이고 우리는 고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만 있을 공간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집을 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부지, 즉 이번 의회 회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등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비난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거리를 살해자들로 가득 채워 그들의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절의 비유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성 안에 두었던 살해된 것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냄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은유의 재사용은 이 상담자들이 도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선량한 시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냄비에 담긴 고기였어요. 그러나 상담사들은 요리 냄비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만 했습니다(9절). 그들이 너희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너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비전이 다른 비전과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환상은 실제 장면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일종의 비디오 장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라이브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고 있는데 브나야의 아들 벨리디아가 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당국에 넘겨져 그들에 의해 살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에스겔은 또 다른 중보를 간청합니다.

그는 중보라는 예언적 임무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내가 옹드리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새로운 메시지에 도달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한 환상들, 일련의 환상들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1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에스겔이 책의 후반부에서 전공할 587년 이후의 기간을 기대하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587년 이전 시대가 아니라 587년 이후 시대에 관련된 일련의 메시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로 생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587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추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87년 이후에도 유다에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은 애가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악인이고 유배된 사람들이며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가 있다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유배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형벌에서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통해 포로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597명의 유배자를 증강시킨 587명의 유배자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멀리 옮긴다 할지라도 말하라. 587년의 유배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지만. 그러나 나는 잠시 동안 그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는 그들이 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마치 성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위한 일종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일을 도우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일종의 성소로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새로운 RSV 텍스트나 여백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작지만 실제적인 존재감의 요소인가? 아니면 그 땅에 다시 온전한 존재가 있기 전에 일시적인 존재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유배자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의 587년 이후 사역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예언.

그래서 유배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 이르면 그 곳에서 모든 가증한 것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 어찌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두 가지 판독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이것은 말하자면 적절한 장소에 다시 올 것입니다.

36장과 26절과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네 속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내가 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33장의 에스겔에 대한 파수꾼의 비유가 3장에도 다시 포함된 것처럼. 따라서 36명의 포로인 587명에 대한 약속은 11장에도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망명자들 전체에게 직접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경고가 있습니다. 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셨나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가증한 일과 가증한 일을 좇는 자들에게는 그러하니라 이들은 망명자들입니다. 그들이 아직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이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본토로 돌아갈 때에도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문자 J를 사용한 심판.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급진적인 심판. 그리고 작은 J를 사용한 심판. 규모는 작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글썄, 이것은 여기서 더 작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확신과 도전을 혼합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약속을 자주 주실 때 거기에 따르는 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겔 사역의 특징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켜보세요. 당신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기 전과 올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환상의 원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이 무아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람산에서 이동식 보좌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포로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는 무아지경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몇 초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꿈 이지 않나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나 시계를 보니, 당신은 몇 분 동안 만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모든 비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스겔이 겪은 무아지경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주요 비전은 그래픽적이고 극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보호받지 못한 채 남겨져 있습니다. 신은 사라졌습니다. 시온 신학의 오래된 시볼레스.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시니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피난처시요 힘이시니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통적인 존재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길을 처벌하는 그의 대리인이 되십시오.

종교적 가증함과 사회적, 도덕적 가증함.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12장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12:1에서 14:11로 이동합니다. 1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5부,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에스겔 8:1-11:25.